

다산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

정약용의 《다산시정선(전2권)》을 읽고

정일근 | 시인



박석무 의 편역
현대실학사/A5신/410면 내외/각 15,000원

이 책은 2천 4백여 수가 넘는 다산 정약용의 시 가운데 216편 741수의 시를 시대순으로 나뉘 편찬한 것이다. 젊은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다산의 전 생애에 걸친 중요한 시들을 가려 뽑아 실은 이 책은 타락한 시대를 질타했던 다산의 강건한 시정신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시들을 통해서 '서정시인'으로서 다산의 면모도 엿볼 수 있다.

다산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이름 덕을 톡톡히 본 시인입니다. 제가 문단에 얼굴을 내밀 때 쓴 작품이 <유배지에서 보내는 정약용의 편지>라는 시입니다. 시를 읽은 사람들은 성씨 때문에 저에게 다산 선생님과 같은 집안인가를 묻곤 하지만 선생님은 본관이 나주인 정(丁)씨시고, 저는 연일 정(鄭)가입니다. 집안은 아니지만 저는 다산 선생님에게 음덕을 입은 셈입니다. 늦었지만 감사 인사 올립니다.

다산 선생님과 인연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대학졸업반이었던 1984년 초겨울,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148년 뒤인 그 해 저는 경찰의 수배를 받아 잠시 피신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거제 학동이라는 바닷가로 급히 도망치면서 주머니 안에 달랑 책 한권을 챙겼는데, 그 책이 소설가 문순태 선생이 쓴 《유배지》(어문각)였습니다. 다산 선생님을 비롯 허균, 김정희, 조광조의 유배지를 둘러보고 쓴 좋은 르포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죄인처럼 숨어 들어간 거제 학동 바닷가는 갈치잡이 철이었습니다. 소일 삼아 갈치배를 타보려고 했으나 거절당하고, 종일 푸른 바다만 바라보며 가지고 간 책을 읽고 또 읽으며 저는 스스로 시대와 역사, 조국에서 유배됐다는 참담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 시절 분단된 조국을 사랑했던 젊은이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했던 내일을 알 수 없는 막막함이, 한 여자의 남편이었고 어린

아들의 아버지였던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길고 긴 겨울밤을 혼자 보내며 <유배지에서 보내는 정약용의 편지>와 <유배지에서 보내는 김정희의 편지>란 시를 썼습니다. 다산 선생님의 유배지였던 강진 굴동의 다산초당은 물론 추사의 유배지였던 제주 대정 바다를 찾아가 본 적이 없었지만 《유배지》란 그 책을 통해 강진 일대의 지명과 선생님의 유배 당시의 정황을 내일처럼 익혀 쓴 시였습니다. 사실은 집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에게 쓰고 싶은 편지를 다산 선생님의 이름을 빌려 쓴 것이지요.

다산 선생님의 시를 읽어보지도 않고, 다산초당에 가보지도 않고 쓴 그 부끄러운 시가 198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길고 긴 터널 같았던 습작시대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거제 학동으로 유배될 당시 이미 《실천문학》에 <야학일기>란 시를 발표해 문단말석에 이름은 올렸으나 <유배지에서 보내는 정약용의 편지>라는 시가 신춘문예 당선작이 되면서부터 제 출세작이 돼 버렸습니다.

1985년 여름, 어린 아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다산초당을 찾아갔습니다. 길을 묻는다고 초당 초입의 한 고택에서 해남 윤씨 성을 가진 노인 한분을 만났는데, 그 어른이 두 시간에 걸쳐 다산 선생님의 전 생애를 세세하게 구술하고 나서 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게 역사여, 역사.”

그게 역사여, 라고 말씀하시던, 선생님의 외가인 해남 윤씨 그 어른의 형형한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당대의 역사였던 다산 선생님의 글과 시를 읽기 시작했으며, 이제 선생님의 책들은 제 머리맡을 지키는 애독서가 됐습니다.

다산 선생님. 최근 현대실학사라는 출판사에서 《다산시정선》이라는 선생님의 시집을 상·하 두 권으로 펴내 읽어봤습니다. 선생님의 연구가인 박석무 선생과 창작과비평사 대표를 지낸 정해림 선생이 편역을 맡았습니다.

그 동안 다산 선생님의 시집이 여러 권 출판됐지만 이 시집에는 216편 741수의 시를 읊은 시기에 따라 8부로 나뉘 놓아, 선생님의 일대기를 대하는 것 같아 좋습니다. 또 선생님의 시력에 대한 연보와 선생님 시에 나오는 사람들과 책에 대한 해설이 실려 있어 시를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간 정성을 기울인 책이 아닙니다.

시집의 첫 시는 14세였던 을미년(1775)에 쓰신 <회동악(懷東嶽)>이며, 마지막 시는 75세로 돌아가시던 병신년(1836)에 쓰신 <회근시(回津詩)>입니다.

시집 속 216편의 시 한편 한편마다 선생님은 살아 계시고, 제 눈빛과 마주칠 때마다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가 역사여.” ●